

# numbers 제 86호



## 주요 내용

2021. 03.05

1. 이번 주 주제 : [학교 폭력과 학생 선수 폭력 실태]

- “코치님이 나무배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초중고생 장래 희망]

-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일반 국민의 종교 단체 헌금의 변화]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 사회 통계

# “코치님이 나무배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지도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의 고백이다.

요즘 스포츠계와 연예계는 학교 폭력으로 들끓고 있다. 모 배구단의 자매 선수는 배구단의 핵심 선수였지만 어린 시절의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한 순간에 선수 생명이 중단되었다. 미스트롯2에서 한 가수도 학교 폭력 가해자임이 드러나서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명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가운데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경우도 있다.

10년 혹은 20년 전의 폭력 사건은 아직까지도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그로 인해서 인생이 뒤틀리는 결과를 맞았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86호는 학교(스포츠) 폭력 문제를 조명한다. 학교(스포츠) 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누가 가해자이고 왜 폭력을 행사하는지 살펴 본다. 또한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문제도 들여다 본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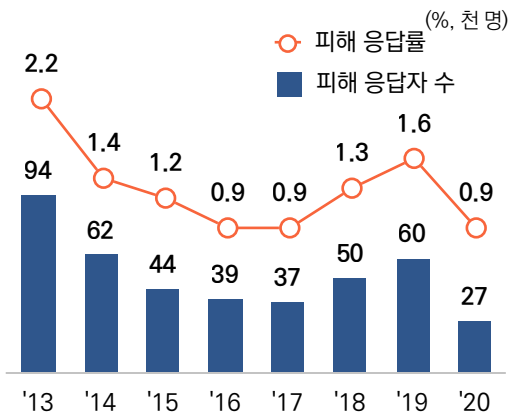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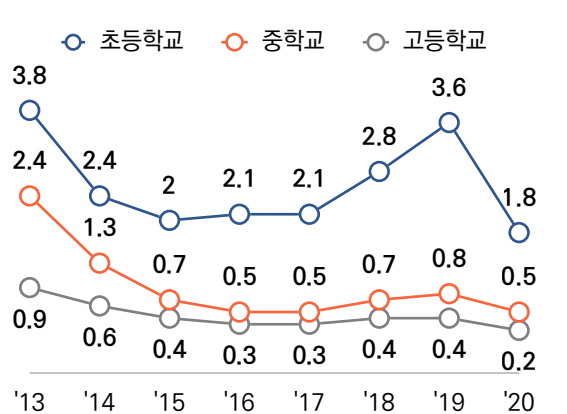
## 학교 폭력 피해자 초·중·고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심해!'

- 지난 1월 2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2020년에 2만 7천 명이며 비율로는 0.9%였다.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던 학교 폭력 피해 응답율이 2020년에 0.9%로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초등학교인데(1.8%), 중학교의 3배 이상이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전체)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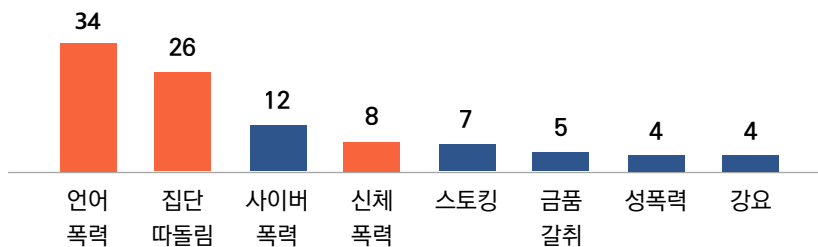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 ●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집단 따돌림 당한 경험 있어!

- 흔히 폭력 하면 신체 폭력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 학교 폭력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언어 폭력'(34%)과 '집단 따돌림'(26%)이었고 '신체 폭력'은 8%였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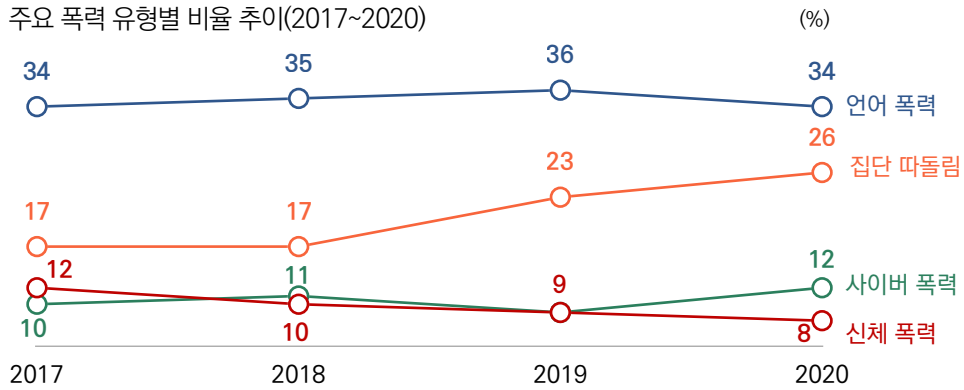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 중복 응답 건수 기준 비율

## ●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증가

- 학교 폭력 가운데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신체 폭력’은 줄어들고 있다.
- ‘신체 폭력’은 쉽게 노출되므로 교사나 학부모의 개입을 불러 올 수 있지만,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그림] 주요 폭력 유형별 비율 추이(2017~2020)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중복 응답 건수 기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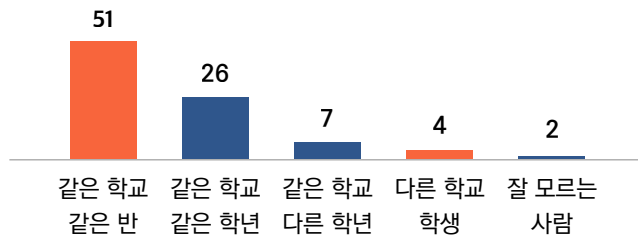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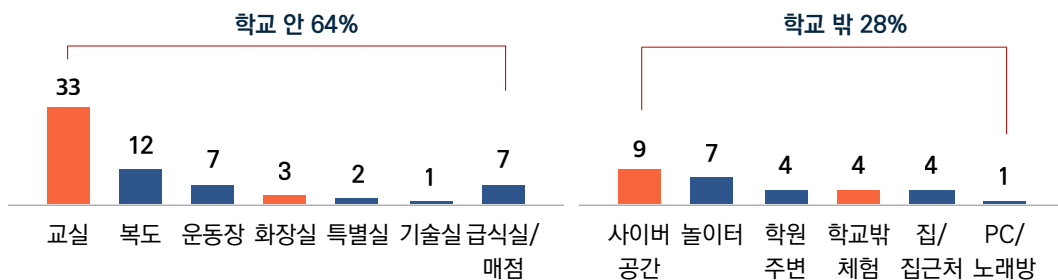
## 학교 폭력 가해자, '같은 반 학생' 51%

- 학교 폭력의 절반(51%)은 주로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는 26%로, 학교 폭력은 주로 같은 학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같은 반 사이에 학교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폭력 장소도 ‘교실 안’이 가장 많았다.
- 그러나 학교 안의 다른 장소와 학교 밖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

[그림] 학교 폭력 가해자 유형 (%)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장소 (%)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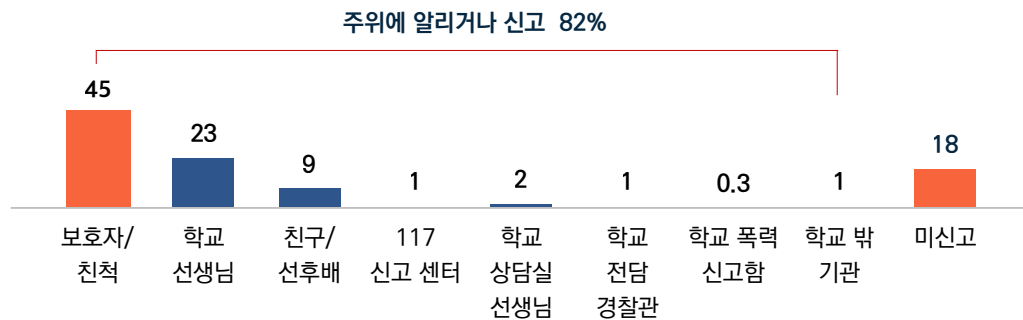
3



## 학교 폭력 당한 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한 비율 26%밖에 안 돼!

-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18%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비율은 82%로 나타났다.
-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보호자나 친척’(45%)이었다.
- 폭력을 당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알린 비율은 4명 가운데 1명 꼴인 23%였으며, ‘117신고센터’(1%), ‘학교 상담실 선생님’(2%)에게 알린 비율까지 포함해서 학교 폭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한 비율은 26%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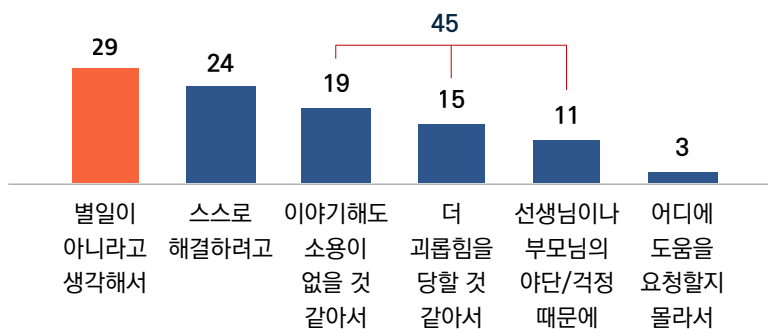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 ● 학교 폭력 미신고 이유, ‘해결되지 않거나 괴롭힘 당할 것 같아서’ 45%

-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서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였다.
-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신고하지 않거나(24%),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19%),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11%) 등 주변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비율도 15%나 되었다.
- 전체적으로 미신고 이유로 해결되지 않거나 더 괴롭힘 당할 것 같다는 등의 비관적인 생각이 무려 45%나 차지하였다.

[그림]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



\*자료 출처 :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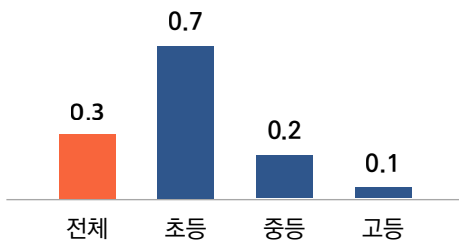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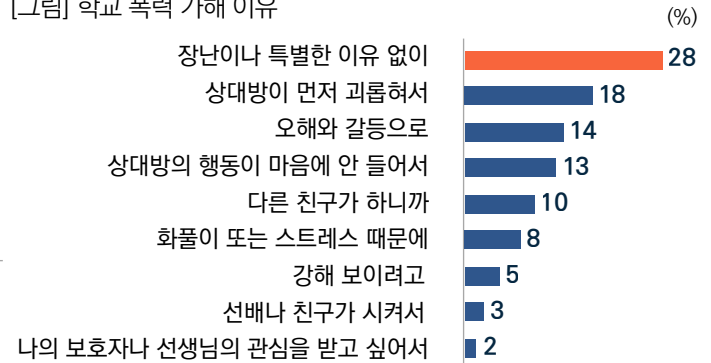
## 학교 폭력의 가해 이유 1위, '특별한 이유 없이' 28%

- 학생들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0.3%였는데, 피해 응답률 0.9%의 1/3 수준이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숨긴 결과로 보인다.
-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것은 피해 학생은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큰데, 가해 학생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8%)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3%), '다른 친구가 하니깐'(10%)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 심지어 '화풀이 스트레스 때문에'(8%), '강해 보이려고'(5%) 등 약자에 대한 멸시 감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림] 학교 폭력 가해 응답률



[그림] 학교 폭력 가해 이유



\*자료 출처: 교육부,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보도자료', 2021.1.21.(초4~고2 학생 전수조사 약 295만 명 참여, 온라인조사, 2020.9.14.~2020.10.2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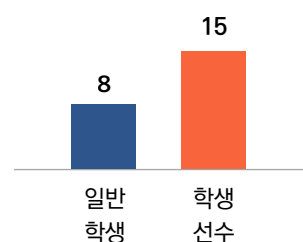
## 학교 스포츠의 신체 폭력 '일반 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아!'

- 학생 선수 가운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였다. 일반 학생 가운데 '신체 폭력' 경험이 8%인 것과 비교하면 학교 스포츠 폭력은 언어 폭력에 그치지 않고 신체 폭력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성폭력'도 4%라는 점을 보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 특히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신체 폭력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스포츠폭력 유형별 경험률(복수 응답, 초중고 학생 선수) (%)

구분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합계	16	15	4
초등학교	19	13	2
중학교	14	15	5
고등학교	15	16	4

[그림] 신체 폭력 비율 (일반 학생 vs 학생 선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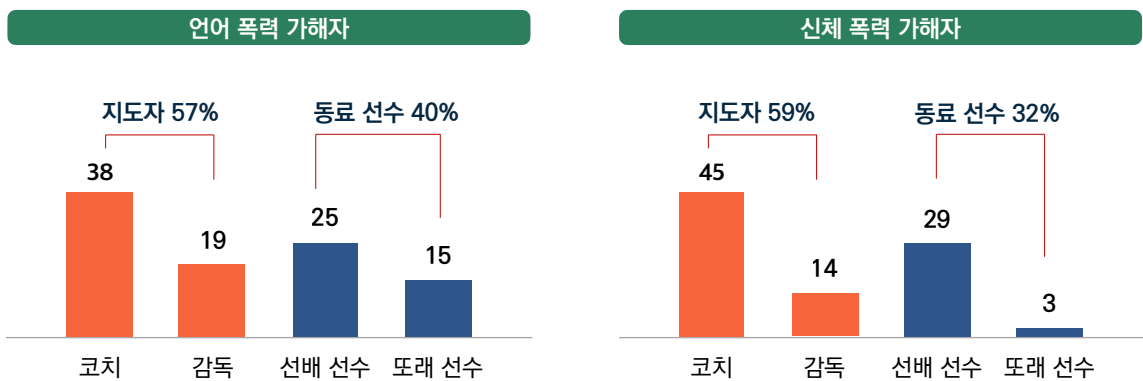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 ● 학교 스포츠 폭력 가해자, ‘지도자’가 절반 이상!

- 학교 스포츠 폭력을 주로 행사하는 사람은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언어 폭력 57%, 신체폭력 59%)이다. 그런데 동료 선수 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30~40%나 되어서 무시 못할 정도이다.
- 주목할 것은 선배 선수가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는 25%인데 신체 폭력을 가하는 것은 29%로 신체 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폭력의 대물림으로서 폭력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학교 스포츠 폭력 가해자(언어 폭력 vs 신체 폭력, 복수 응답, 초중고 학생 선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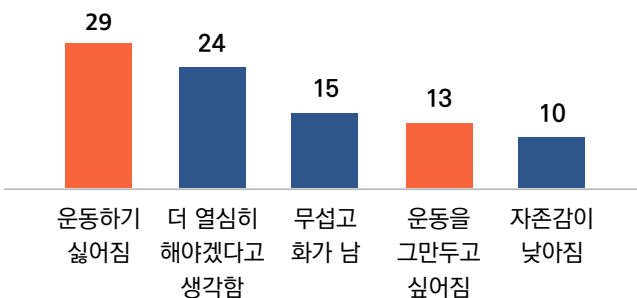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 ● 신체 폭력 피해 학생 선수의 5명 중 2명 이상, ‘운동 중단’ 감정 보여!

- 신체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운동하기 싫어짐’(29%) 또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짐(13%)’ 등과 같은 운동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학생은 24%로 나타나, 신체 폭력 피해 학생 4명 중 1명은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폭력의 내면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신체 폭력 경험 시 감정(상위 5위, 초중고 학생 선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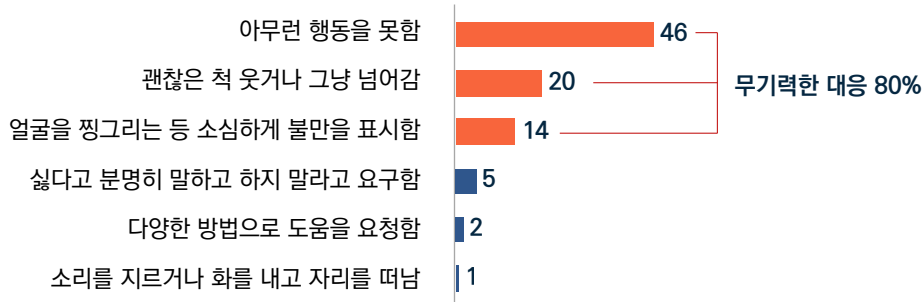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 ● 신체 폭력 경험시,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대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에 지나지 않다!

- 신체 폭력을 경험했을 때 학생 선수들은 아무런 행동을 못하거나(46%), 그냥 넘기고(20%), 소극적인 불만만 표시하는(14%) 등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신체 폭력 경험 시 대처(중고 학생 선수, 상위 6위) (%)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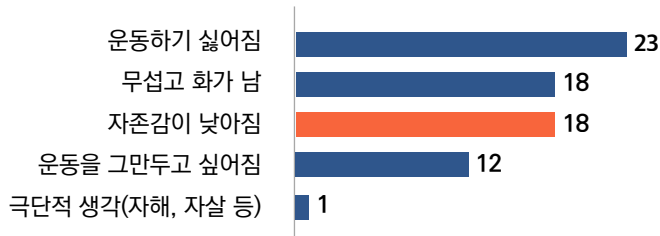
### 6



## 성폭력 경험 시, '자존감 낮아짐' 18%

- 성폭력을 당한 학생 선수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운동하기 싫어진다'(23%)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이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상처로 남는다.
- 또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무섭고 화나는' 경험(18%)과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18%)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남기므로 일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게 된다.

[그림] 성폭력 경험 시 감정(상위 5위, 초중고 학생 선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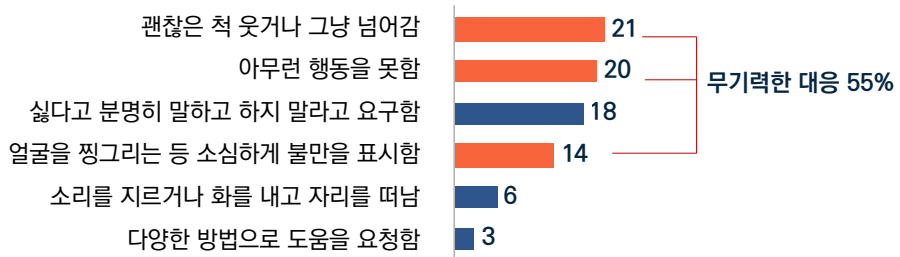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 ● 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역시, '무기력한 대응' 55%

- 성폭력을 당했을 때 '괜찮은 척 웃거나 그냥 넘어'가거나(21%)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20%) 있거나 또는 '얼굴을 찡그리는 등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14%)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55%나 되었다.
- 현장에서 바로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18%)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6%)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3%) 등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비율은 27%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성폭력 경험 시 대처 (%)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11.7.(학생 선수 57,557명 조사, 2019.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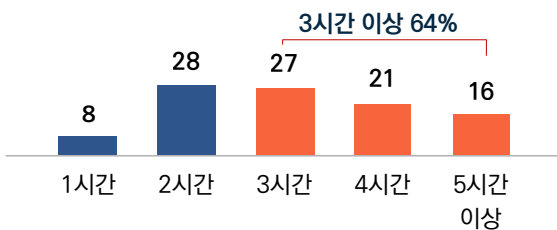
## 7



## 학생 선수, '과도한 운동에 내몰려'

- 학생 선수들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64%나 되고 오전 수업이나 오후 수업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지 않는 비율이 28%나 되었음. 즉 운동으로 인해서 수업 결손을 겪는 학생이 4명 가운데 1명 이상일 정도로 수업 결손이 다반사이다.
- 학생 선수들은 수업 결손까지 감수하면서 '경기 성적 내기'에 올인하는 실정이다. '경기 성과'가 지상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목표를 위해서는 폭력이 허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러한 암묵적 동의가 폭력의 발생과 은폐를 조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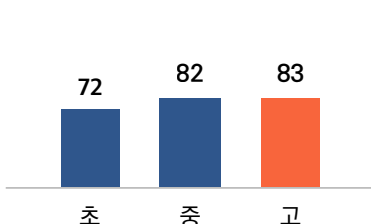
[그림] 평일 하루 평균 운동 시간(시합이 없을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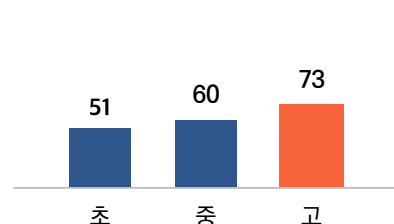
[그림] 평소 수업 참가 정도 (%)



[그림] 주말/휴일 운동 '실시한다' (%)



[그림] 운동 시간 '길다'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스포츠(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 2019.11.7.(학생 선수 63,211명 전수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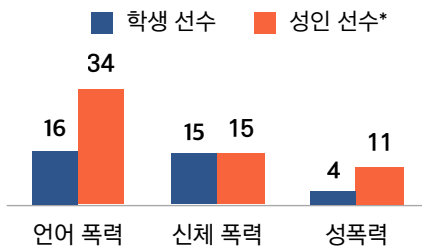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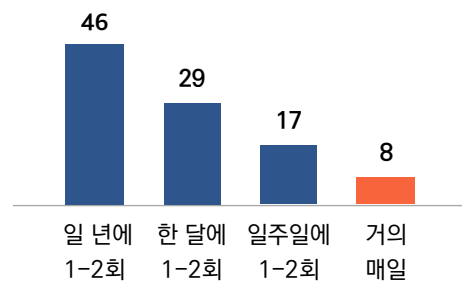
## 성인 선수의 폭력 피해, 학생 선수보다 훨씬 심각해!

- 스포츠 실업팀 선수들의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언어 폭력’ 34%, ‘신체 폭력’ 15%, ‘성폭력’ 11%로 성인 선수들이 학생선수보다 언어 폭력과 성폭력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성인 선수의 경우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8%나 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학생 선수와 성인 선수 폭력 실태 비교 (%)



[그림] 성인 선수의 신체 폭력 빈도\*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보도자료, 2019.11.25.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실업팀 스포츠 선수 1,251명, 모바일조사, 2019.07.22.-08.05.)

## 학교 스포츠 폭력 ‘피해 학생 증언’

### 초중고 학생 선수

“단장님과 감독님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욕을 먹지 않으면서 하고 싶다.”(초4, 남자, 아이스하키)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대... 안 맞는 날은 없고 매일 매일 맞았어요.....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초등, 남자, 배구)

“코치님이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잠도 못 자고 앉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초4, 남자, 배드민턴)

“선배들은 주로 숙소에서.....심할 때는 그 충전기 선이랑...뭐 그런 걸로 감아서 팔이나 가슴이나 때리고.....티가 나면 뭐 위에 긴 팔 입으라고...”(중학교, 남자, 양궁)

“조선 놈들은 맞아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습니다.”(고3, 남자, 축구)

“엎드려서 하는 굳히기 있잖아요.....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손을 넣어서 잡고 돌리라 하는데, 보는 사람도 수치인데, 남자 코치님이니까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을 넣어서 가슴 깃도 잡는데.....”(고등학교, 여자, 유도B)

“매번 똑같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 없는 이야기 좀 그만해 주세요! 진짜 힘들고 죽고 싶은 생각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운동 하나만 보고 오로지 운동이 좋아서, 남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죽어라 맛고, 폭언하는 거 참고 운동했어요. 조사만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 성인 선수

“저 같은 선수들 꽤 있어요. 대부분 선수들이 자기가 우울증인 걸 몰라요. 그냥 내 정신력이 약하다.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렇게 되곤 해요. 저도 우울증인 거 몰랐는데요. 심리상담을 하면서 제가 우울증인걸 알았거든요. 전 소속팀에서 자살시도를 해서 나왔어요. ....〈중략〉..... 최근 감독과의 갈등 이후 2번째 자살시도를 했어요. 1년 치 수면제를 받아서 다 복용했어요. 3일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20대 후반).

“시합 끝나고 카메라가 집중됐을 때 감독님한테 뛰어와서 두 팔 벌려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가 난거예요. 선생님을 남자로 보냐고, 왜 와서 선생님한테 가슴 대 가슴으로 못 안기냐고 그랬어요.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라고. 어떤 지도자들은 고등학생 여자선수였는데 술 마실 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요.”

“특히, 언니들이랑 쓰는 게 진짜 불편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녀요. 서랍장 같은 거 열어보면서. 야 옷 이거 정리 안 하냐 이러면서, 서랍장에 서류 같은 거 보면서, 누가 뭐했네, 뭐했네 하면서 제 사생활을 터치해요.”(20대 중반)



## 시사점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어릴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의 문제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그가 성장해서도 그의 삶에 얼마나 그늘을 드리우는지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인지하게 되었다.

작년에 tvN에서 방영되었던 ‘비밀의 숲2’라는 조승우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친구가 성장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 와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갈취를 해도 변변한 저항을 하지도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죽이는 사건을 소재로 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학원 폭력은 뜻밖에도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3쪽). 또 폭력 하면 흔히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신체 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모욕, 협박을 가하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다(3쪽). 언어 폭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은 습관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은 폭력 유형이 집단 따돌림인데 집단 따돌림은 ‘신체적 특징(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등등)’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이 온라인으로까지 번지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그 폭력을 어디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5쪽).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학교 폭력에 노출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등 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터무니 없는 원인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6쪽). 미스트롯2에서 중도 하차한 가수가 그의 SNS에 ‘저의 학창시절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어린 시절 철없는 행동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으셨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게 후회스럽고 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공개 사과를 한데서 알 수 있듯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폭은 어린 시절의 장난 혹은 사소한 일탈이 아니라 ‘폭력’ 그것도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안기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되듯이 폭력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피해자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본인의 가벼운 행동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우선 교역자와 교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계몽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를 통해 교회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급상승!
2.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초중고생 장래희망



##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20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안정적 직업을 선호했는데,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의료인에 대한 관심이 상승할 것이 눈에 띄었다.
- ‘초등학교’ 장래 희망은 ‘운동선수(9%)’가 매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위 ‘의사’(8%), 3 위 ‘교사’(7%)로 나타났는데, 2019년 ‘의사’가 4위에서 2020년 2위에 오른 점이 특징적이다.
-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1위 모두 ‘교사’인데 중학생의 경우 1위 ‘교사’(9%), 2위 ‘의사’(6%), 3위 ‘경찰관’(5%)였고, 고등학생은 1위 ‘교사’(6%), 2위 ‘간호사’(4%), 3위에 처음으로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4%)이 올랐다.

[표] 2020년 초·중등 장래 희망(‘희망 직업이 있다’고 한 학생 대상, 상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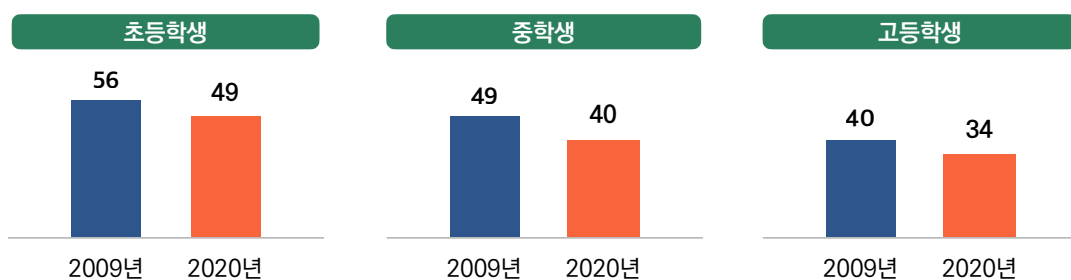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9년	2020년	2019	2020	2019	2020
1위	운동선수 12%	운동선수 9%	교사 11%	교사 9%	운동선수 12%	교사 6%
2위	교사 7%	<b>의사 8%</b>	의사 5%	<b>의사 6%</b>	교사 7%	<b>간호사 4%</b>
3위	크리에이터 6%	교사 7%	경찰관 5%	경찰관 5%	크리에이터 6%	<b>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4%</b>
4위	의사 6%	크리에이터 6%	운동선수 4%	군인 4%	의사 6%	군인 3%
5위	조리사(요리사) 4%	프로게이머 4%	뷰티디자이너 3%	운동선수 3%	조리사(요리사) 4%	의사 3%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2020.2.24.(전국 초중고 1,200개 학교 학생 23,223명, 학부모 16,065명, 교사 2,800명 총 42,088명, 온라인 조사, 2020.7.15.~10.15)

### ● 학생 ‘희망 직업’, 더 다양해지고 있다!

- 각 학생의 희망 직업의 변화도 두드러지는데, 희망 직업 상위 10%까지 누계 비율이 초·중·고 모두 2009년 이후 매해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생’은 2009년 56%에서 2020년 49%, ‘중학생’은 49%에서 40%, ‘고등학생’은 40%에서 34%로 낮아졌다. 그만큼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해지고 정형화된 희망 직업 형태도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까지의 누계 비율(2009 vs 2020년) (%)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2020.2.24.(전국 초중고 1,200개 학교 학생 23,223명, 학부모 16,065명, 교사 2,800명 총 42,088명, 온라인 조사, 2020.7.15.~10.15)

1

일반 국민의 종교 단체 헌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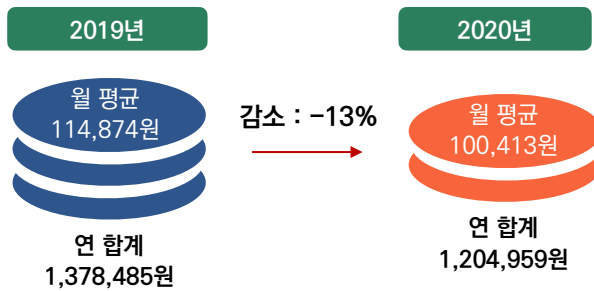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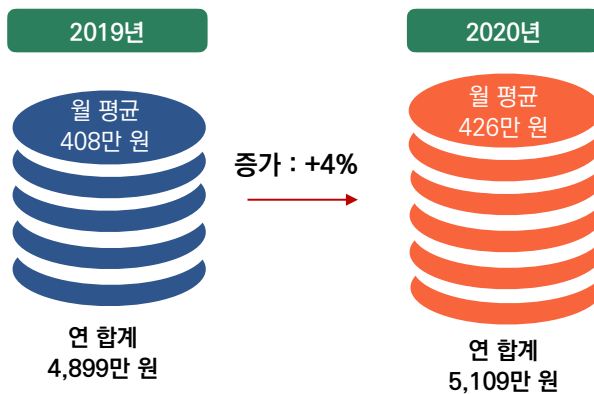
- 지난 2월 18일 통계청이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2020년 연간 가구당 월 평균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기부금)’은 100,413원으로 2019년 114,874원 대비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 : 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헌금) 또는 비영리사회단체에 월 기부액 또는 회비를 말하는데, 통계청은 주로 비영리사회단체 기부금이 1~3만 원 수준으로 본다면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함)
-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이 2020년 월 평균 408만원에서 2020년 426만 원으로 오히려 4% 늘었음에도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모임 등의 증가로 헌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가구별 비영리단체 이전 지출(기부금) 추이 (2019 vs 2020)



[그림] 가계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2019 vs 2020)



\*자료 출처 : 통계청, '각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

\*\*처분가능소득 : 소득에서 비소비지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일명 실제 가구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말함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직장인이 함께 일하고픈 상사유형 1위 '유재석' 2위 '윤여정'](#)

동아일보\_2021.02.28.

['파산절벽' 내몰리는 5060... "생활비 모자라 빚 낸다"](#)

연합뉴스\_2021.03.01.

[가파르게 늘어나는 고도비만 인구... "지금이 골든 타임, 치료 시급"](#)

조선일보\_2021.03.03.

트  
렌  
드

[요즘 대학 새내기... "미팅이요? 차라리 주식 할래요"](#)

매일경제\_2021.03.01.

["쌈보다 돈이 좋아" 코로나 청년들의 비혼 예찬](#)

조선일보\_2021.03.01.

['래플'에 열광하는 MZ세대... 한정판 운동화 추첨에 28만명 몰려](#)

동아일보\_2021.03.01.

인  
구  
문  
제

[생각보다 빨리 온 인구감소... 코로나 출산 감소는 이제 시작](#)

동아일보\_2021.03.03.

[지난해 남아 성비 43년만에 최저...역사로 남은 '남아선호'](#)

연합뉴스\_2021.03.01

['20대 엄마' 줄어든다...30년전에 52만명 작년엔 6만명](#)

연합뉴스\_2021.02.28.

환  
경

[착한가게·친환경·한정판... '취소가치'엔 아낌없이 지갑 연다](#)

조선일보\_2021.03.01

['플라스틱 물티슈' 오늘도 쓰셨나요?](#)

오마이뉴스\_2021.02.2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 제	<a href="#"><b>한국, 작년 수출 5.5% 줄었지만 7위 수출대국 지켰다</b></a>
	연합뉴스_2021.02.28.
	<a href="#"><b>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1천755달러</b></a>
	연합뉴스_2021.03.04.
	<a href="#"><b>"엄마가 비트코인 투자해요"...40~50대, 2030 제치고 가상화폐 주역으로</b></a>
	매일경제_2021.02.28.
코 로 나 1 9	<a href="#"><b>①집콕 ②배달음식 ③우울감 ④불면이 만든 '비만 팬데믹'</b></a>
	조선일보_2021.03.01.
	<a href="#"><b>코로나 백신 신뢰도 '화이자62%-모더나53%-아스트라제네카44%'</b></a>
	폴리뉴스_2021.02.26.
칼 럼	<a href="#"><b>여아 선호 시대</b></a>
	한국경제_2021.03.01.

#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 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중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허은주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을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중증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 69호-84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제 83호** | '기독교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 제 85호**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